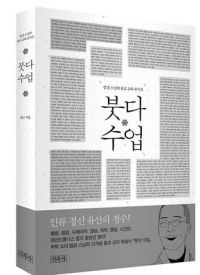


붓다 가르침 실천... 업그레이드 되는 삶



붓다수업
법상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5천원

경전과 수행, 명상, 자연과 여행을 주제로 쓴 사유의 글들을 엮고 있는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새 책을 출간해 화제다.

현재 태릉 육군사관학교 내 호국화랑사 주지인 스님은 사이버 수행 공간 목탁소리 지도법사로 더 알려져 있다. 스님의 글을 읽고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모임 '목탁소리'를 만들었고, 목탁소리는 종교와 계층을 초월해 마음을 맑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고향과 같은 귀의처로 불교와 명상 분야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이 사회의 많은 이들이 기존 불교 교리서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불교 교리서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소망의 결정물이 바로 이 책이다.

법상 스님은 이 책의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붓다의 그 신선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흡수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썼다"며 "고리타분하거나, 현학적이거나, 교리적인 해설이 아닌, 붓다의 가르침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접목되는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들어 놓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의 시대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이 책은 저자가 불교 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 붓다가 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워 집필했다.

저자는 불교교리 속에는 선지식들이 펼쳐낸 인류 정신 자산이 모두 담겨져 있고, 종교와 사상, 철학을 비롯해 현대의 힐링, 뉴에이지, 치유, 명상 등 그 모든 것의 근원적 가르침이 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저자는 불교 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고, 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되면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붓다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고 말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 교리가 단순한 사상이나 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직접 실천 가능한 생활 속의 수행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침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려운 길목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

길 때마다 스스로 직접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 <붓다 수업>을 통해 '그 모든 것의 원천이자 근원'인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주의 근본, 삶의 근원적 의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불교 교리의 중요한 용어인 무아(無我)를 홀로그램으로 이뤄지는 소녀시대 공연의 원리를 들어서 흥미진진하게 해설해 준다. 첨단과학문명이 발견한 것들을 이미 부처님

법상 스님의 신개념 불교교리 해설서

교리만 이해해도 삶의 의문 해결

딱딱한 교리 부드러운 필체로 풀어

께서 2,500년 전에 알았고, 불교 교리 속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밝혀낸다. 이와 같이 모든 불교 교리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증 사례와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 설명, 독자 스스로 '붓다의 가르침'에 몰입케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불교교리 속에 담긴 생활 속 삶의 지침들을 살펴보고, 불교

교리를 통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삶의 근원적인 의문들을 풀 수 있는 지의 배려가 행간에 있다. 저자 특유의 자상한 필체로 풀어내 독자로 하여금 불교 교리가 현학적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이 책은 단순한 불교 교리서가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자기계발서이자 마음공부 안내서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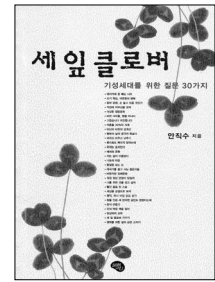
▲저자 법상 스님은?

인연 닿는 도량에 여행하듯 머물며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터넷 생활수행도량 '목탁소리(www.moktaksori.org)'와 다음 카페 '목탁소리 지대방' 지도법사, 화랑호국사 주지, 불교아카데미 학장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닦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수행을 이끌어 가고 있다. 사이버모임 '목탁소리'는 바쁜 생활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소중한 깨침의 공간이 되었고, 종교와 계층을 초월하여 마음을 맑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고향과 같은 귀의처가 되면서 불교와 명상 분야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자리 잡았다. 저서로는 <금강경과 마음공부> <생활수행 이야기> <마음공부 이야기>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삶을 창조하는 행복수업>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세잎 클로버 꽃말 '행복'은 삶에서 추구할 큰 가치

세잎클로버

안익수 지음 | 올리브 그린 펴냄 | 1만원



불교신문에 재직 중인 안익수 기자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조금 안보인 다 싶으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바쁜 기자 생활에도 불구하고 일본책을 번역해 펴낸 <올버너 버린 빨강 도깨비>가 그렇다. 또한 <암자를 찾아서> <아름다운 인생> 등도 출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성 세대를 위한 질문 30가지"란 주제로 된 <세잎클로버>를 펴낸 것이다. 그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인 안 기자는 내년 6월에 도의원에 도전한다.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인 것 같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핸드북 형식이다. 책 내용을 누구나 한번쯤 느끼고 생각할 삶 속에서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들을 서술한 것이어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주제도 '조기학습' '왕따' '캠핑문화'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아이들의 조기학습을 어른들의 병폐라고 주장한다. 보통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적어도 12년간 영어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공부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오랫동안 대화해야 하는 직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라고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저자는 그렇다고 무작정 영어교육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어를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큰 아이를 예로 소개한다.

저자의 큰 아이가 5학년이 되기 전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1년간의 생활 후 돌아와서 아직까지 영어학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영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생에서 어린이나 어른이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저자는 행복을 꼽는다. 저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는 우리 삶에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리고 비우고 낮추는 것이다. 특히 기성 세대는 하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심은 자신의 아상을 버리는 작업이며, 아상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불행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이들도 존중할 수 있는 하심은 중요한 행복의 덕목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일례로 40~50대 남자들은 특

행복 위한 습관...비우고 낮추기

삶에서 느낀 30가지 단상 소개

저자, 내년 6월 도의원에 도전

히 지고 살라고 조언한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지고, 양보하고 살라는 것이다. 진다고 해서 내게 작은 피해나 문제라도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고 살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편한데 지고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도 평온해 진다고 주장한다.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만 주저도 가슴에 와 닿는다. 저자는 욕 하는 성격을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매일 사경을 하라고 처방전을 내린다. 익숙하지 않은 한자를 쓰러다보면 적지 않은 인내심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인내의 습관은 생활에서 화를 참는 절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덧붙인다. 화를 참는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큰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변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과 화합의 문화가 널리 퍼져 물질은 수단이며 정신이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학담 스님 교리 학술서 세 권 펴내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

학담 스님 지음 | 큰수레 펴냄 | 2만1천원

선으로 본 불다의 세계 | 2만5천원

반야심경통서 | 1만3천원



학담 스님은 1970년 도문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동헌선사 문하에서 몇 년의 선 수업을 거친 뒤 상원사, 해인사, 봉암사, 백련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선이 언어적 실천, 사회적 실천과 둘이 아닌 창조적 선공을 각운동의 이름으로 제창하며, 용성진종선사 유업계승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에 대승사 도량을 만들고 역경법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들이 <사십이장경강의> <돈오입도요문론> <원각경관심석> <육조법보단경> 등 불전 해설서다.

이번에 학담 스님은 학술서 책을 세 권 펴냈다.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통서> <선으로 본 불다의 세계> 등이 그것이다.

우선 현수법장 스님은 중국 당조때 화엄종을 수습했다. <반야심경약소>는 반야불교와 유식·여래장 불교를 회통해 화엄종교를 건립한 스님의 대표저술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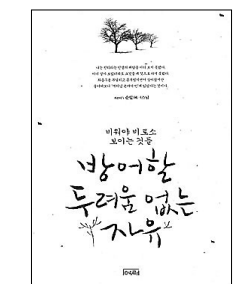
<현수법장으로 읽는 반야심경>은 이미 20년 전에 발간됐지만 편제를 새로 바꾸고 술어를 재검점해 재개정판으로 낸 해설서이다. 천태지자선사의 경전해설 관점으로 현수소를 다시 이해한 것이 특징이다.

용성 스님은 조선조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선사다. 한문에 강하고 역불의 시대적 암운에 가린 조선조 불교의 붕건성을 깨뜨리고 불교사에 새 빛을 던 선사이다. 용성 선사는 세종조 '간경도감' 이후 한글역경을 새로 시작한 민족운동가이기도 하다. '석가사'는 용성선사가 불다의 생애를 선(禪)의 관점으로 기술한 100쪽 이내의 짤막한 책이지만, 50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재해석했다. 마지막 책은 '반야심경현수소'를 재편집하면서 현수소의 변해성에서 벗어난 심경의 대의를 저자의 견해로 자유롭게 풀이한 책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초기말씀 42주제로 서술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순일 이호조 지음 | 순일출판사 펴냄



삶에 지친 이들에게 세상은 수많은 처방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스승들은 한결같이 '모든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내면의 욕구를 뒤돌아 보라' '명상하라'고 외쳐댄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가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관념이고, 애고이고, 의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야말로 이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부처님의 초기 말씀을 예를 들고 있다.

저자는 "부처님은 무아를 먼저 이야기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오오에 집착함이 괴로움이며, 그 집착을 끊고 무지를 소멸시키면 해탈이라 했다"며 "부처님은 무아로 시작해

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 집착을 끊을 것을 설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처님의 초기 말씀을 42주제로 세분화해 이야기한다. '염매일'이란 주제에서 저자는 흔히 염매인다고 할 때에는 그 염매는 대상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속적인 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주인이 염매이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뭐가 바라는게 있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염매인다는 것이다. 염매이지 않으면 서로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저자는 역설한다. 서로 바라는 것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일때 염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이 책에서 업(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불교에서 업이란 의지적 힘인데 이것은 지은대로 선업과 악업을 쌓아서 받는 결과가 업보라고 말한다. 업은 실체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되며, 누군가 참나가 됐다면 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없는 행위에는 의지적 힘을 발할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업이란 일종의 관념과 같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도 관념이 형성화된 틀이며, 생각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주일 기자

양초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불기 2557년 동지」를 맞이하여 양초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이 초는 불기 2557년 동지를 기념하는 육각초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 상당)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아오며, '제목 양초 보시', '반오실 사찰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세요.

단, 택배비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신청 : 삼환양초 FAX 031)766-0233, 6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외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